

2024년
고3
9월 모평

2024년 시행 고3 9월 모평 국어 문학 | 날개 또는 수갑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 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민도식, 장상태, 우기환 등)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회사가 일방적으로 제복 착용 확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제복 제정과 관련해 회사와 개인의 의견 조율을 위해 만든 기구)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함. 여기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의미로 사용됨.)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준비 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한 상황 분석. 회사 측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진짜 이유는 동림 산업은 민주적인 회사라는 인상을 회사 안팎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음.)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회사의 방침에 굴복하고 제복을 입는 것)**(제복과 관련하여 엇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회사의 방침에 끝까지 저항하여 제복을 입지 않는 것)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권 씨)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제복을 입는 것으로 사원들이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웃는 권 씨)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 사원들의 거부 의사를 전달하려 했던 준비 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그 책임 소재를 거론하며 사원들이 다툼.

[**생산부 공원**(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복장을 한 사내]([]: 권 씨, 동림산업 생산직 노동자)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아릇한 웃음**(사무직 직원들의 대화에 대한 권 씨의 반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자신들을 비웃는 것 같은 권 씨의 태도에 화가 난 장상태)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권 씨)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권 씨)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권 씨, 장상태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애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권 씨의 생산부 공원 복장을 보고 짐작함.)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근무 장소와 직책)

“이름은?”

“**권입니다.**”(자신의 이름을 알려 줄 생각이 없는 권 씨)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성과 이름을 모두 말하라는 의미)”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권 씨를 무시하는 장상태의 태도) 함께 **놀이**(권 씨에게 화풀이하는 것)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장상태와 권 씨의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 그 (권 씨)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공장 노동자들이 본사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느끼는 비굴한 감정을 의미함.)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비슷한)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어떤 일에 대한 상당한 경력으로 생긴 위엄이나 권위)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관록이 엿보이는 권 씨의 인상으로 인해 교양있어 보인다고 느껴짐.)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 :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에서 권 씨의 외양, 특징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음.)**(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권 씨)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권 씨와 같은 사람들, 공장 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러는 분들**(회사 측의 제복 제정에 항의하는 사원들, 권 씨는 의복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원들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며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 : <보기>로 다른 작품을 제시하고 ‘권 씨’가 <보기>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사원들에 대해 비꼬는 권 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장상태)

▶ 준비 위원회와 관련된 사원들의 언쟁을 지켜보던 같은 회사 생산직 공원 권 씨가 등장함.
(중략)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제복 입는 것에 불만을 품어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민도식)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우기환, 제복 도입에 불복하여 회사를 그만둠.)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 : 아내는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고 있으므로 도식의 말을 믿지 않고, 우기환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며 민도식도 계속 저항하면 잘릴 것이라 걱정하고 있음.)]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개성과 자유의 억압을 상징함.)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 :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임. 강제적으로 획일화 시키려는 것에 대한 반발)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회사의 제복 제정에 반대하지만,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아내로 인해 결국 체육 대회 장소로 향함.)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민도식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행사가 진행됨.)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사복을 입은 사원들의 획일적인 모습)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획일적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민도식’이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제복이 상징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을 강조함.)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

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회사를 상징하는 노래. 사원에 대한 통제, 자유의 억압, 개성 말살을 상징함.)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민도식)**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회사의 방침에 굴복한 사원들)이 **일치단결**(여럿이 마음을 합쳐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침.)해 가지고 [**사복(개인 복장)**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민도식)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운동 제복투성이**(군사 독재 정권의 획일적인 문화에 대한 작가의 풍자적 표현)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고립무원(孤立無援)) **자기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최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민도식이 참가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행사.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실을 작가가 체육 대회에 비유함.)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민도식이 느끼는 감정)**(민도식이 개최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연상할 수 있는 시구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불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민도식. 체제에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민도식의 소시민적 태도가 나타남.)**(민도식의 중간자적 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창업 기념일 행사에 참여한 민도식은 제복을 모두 갖추어 입은 모습에 외로움을 느낌.
- 윤홍길, 「**날개**(자유와 개성의 상징) 또는 **수갑**(구속과 속박, 획일화의 상징)」

핵심 정리

-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 성격: 현실 비판적, 풍자적, 상징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구성원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문화 비판
- 특징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 등장인물 중 한 인물(민도식)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음.
 -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전체 줄거리

동림산업의 창립 10주년이 되는 어느 날, 동림 산업 운영진은 ‘동림산업의 기개를 대외에 과시함은 물론 사우 간에 일체감을 조성해 단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사원이 동림산업의 이름이 새겨진 제복을 입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달한다. 그러나 동림산업의 사원들은 퇴근 후 여러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 동림산업이 삼류회사라 그곳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 반응을 보인다. 민도식, 장상태, 우기환 등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은 직원들의 불만을 묵살하며 회사와 개인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노력하는 ‘준비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 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 태도로 제복 제도를 통과시킨다. 민도식, 장상태, 우기환 등은 다방에 모여 불만스러운 의견을 나누는데, 이때 그들 사무직과는 달리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권 씨가 그들에게 옷과 같이 사소한 일에 불만을 표하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결국 제복을 입는 제도 도입은 운영진의 뜻대로 진행되어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은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이를 거부한다. 사장과 면담을 거치지만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기환은 제복 도입에 불복하여 회사를

그만둔다. 회사 창업 기념일, 민도식은 녹장을 피우다가 행사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는데, 전 사원이 제복 차림으로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혼란을 느낀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1970년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개성과 자유의 억압을 상징하는 ‘제복’을 통해 불합리한 권력층에게 개인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당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준비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결국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여 제복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 운영진의 모습은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채 국가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제복 착용에 반발하던 직원들이 결국은 모두 흩어져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은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 의식은 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겨 저항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서지정보

저자 심연수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575-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09.11.

가격 500원

